

##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창세기 37장 18-24절.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들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끝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왜 광야 구덩이에?

우리 인생에 직면한 심각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 구덩이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못했을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의 구덩이는 선과 악의 문제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무렵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람들의 혼란에 대하여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 입에는 다음 질문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귀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그 답변은 둘 다 아닙니다. 비록 전쟁 배후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있지만 전쟁은 사람의 일입니다. 전쟁은 개인이든 국가든 의지의 충돌입니다. 지금은 국가들 간에 무서운 의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이란 필연적인 사실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혹함이나 열정이나 두려움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예기하고 있어야 한다. 전쟁, 원한, 미움, 질투, 모독, 추방, 죽음 등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놀라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전쟁과 소란의 소무를 들을 뿐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도 전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신문 기사가 아니라 우리 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빠져 나올 길도 없습니다. 시계 역사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말라,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주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이니 설명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구덩이’에 던진 일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그 구덩이’ 앞에 ‘광야’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여기에서 잘 어울리는 말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은 세겜에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을 문안하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르엘 평야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광야’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듯합니다.

물론 목축을 하는 곳이 농경을 하는 지역처럼 물이 풍부하거나 비옥하지는 않겠지만, ‘광야’라는 말이 그리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포도농사가 아주 잘되는 비옥한 지역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혼자 형들이 있는 곳까지 보낼 정도이니,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광야는 더욱 아닐 듯합니다.

지난번 하갈이 만난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죠. 하갈은 어깨에 지고 있던 물과 음식이 동이나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곳이니 말입니다.

[지도 참조]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은 북쪽으로 21km에 위치한 도다님 평원에 위치

그러니 여기서 ‘광야 구덩이’라는 것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즉, 지리적인 의미에서 광야가 아닌 인생이 광야, 즉 어두운 구덩이로 던져진 것입니다.

## 던져지다. . .

때로 우리 인생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던져진’ 곳에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던지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종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성공 스토리’로 보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성공은 그가 원했던 것도, 성공을 위해 그가 노력했던 것도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광야에 살다]에 나오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가?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까지 말씀을 보세요.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미웠고,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이죠. 그것도 요셉을 죽일까 말까 의논하다가, 다행히 장형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 아니 인생이 광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광야는 팔려간 애굽땅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을 부리며 살았을 요셉이 노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려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대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를 보디발이 살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해오는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내가 보여주는 옷을 살펴본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요셉의 옷은 앞에서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뒤에서 찢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요셉을 나내가 뒤에서 붙잡다가 찢겨진 것을 눈치 챘지만, 그대로 사실을 말하기에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니,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제대로 된 감옥에 갇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그 어떤 구덩이에서도 요셉은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매번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전반부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즉,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끝으로 ‘성공 신화’와 완성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부분은 서론에 불구하고, 그 이후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후반 부 9장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인생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전반부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성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요셉의 노력으로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죠.

그는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단어 '형통'은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형통했나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형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히브리어의 '찰라흐'라는 말의 '형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뺏고 건너가다' 즉,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흥을 이기고, 감옥을 살아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 광야의 구덩이에서 잘 된다!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광야의 구덩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광야의 구덩이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함’을 그 당시에는 고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니 그 ‘광야’가 형통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사도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루느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이라는 말이 맞을 듯합니다.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환하게 보  
이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 결말을 알고 나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의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꿨던 일,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 애굽에 노예로 팔아 버릴 때,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를 모함해 무고하게 감옥에 보낼 때,  
죄 없이 감옥에 갇혀 몇 해를 보내야 했던 때. .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다 연결해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놀랍고도 확실한 정의를 하나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순간 순간 광야의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통(通)’하  
게 하셨습니다.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다 통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善)’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0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선은 성공이나 축복 혹은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  
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참 많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신약에서 참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 주옥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2절과 35절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인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항상 성공하거나 문제가 없이 잘 되는 풍요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에도 기고 건디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구덩이’에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믿음 장’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13절과 3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더 나은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말할 때도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해’인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 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예화가 될 듯합니다.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25세, 29세, 35세) 교통사고와 백혈병으로, 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라고 말하자 그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세 개의 광야의 구덩이를 만났다면, 우리 역시 인생에서 여러 개의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